

전교조에 포획된 대한민국 교육현황보고

- 변호사 김기수 -

I. 연구의 주제

1. 대주제 : 대한민국 교육현황과 극복방안
2. 소주제: ① 전교조에 포획된 공교육 살려내기
②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방안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로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나 곧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국이전의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현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현황과 그 극복방안을 대주제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및 소속 노조원교사들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실태를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교육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한편, 교육의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어야 할 교육분야는 단연코 사학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학과 전교조의 활동이 충돌하여 사학의 자율성이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본 연구는 전교조의 실태를 고증하여, 전교조가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거대담론 수준의 대주제를 정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제약이 많고 공포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보고서는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II.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비교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단하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함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그동안 교육의 근본 목적¹⁾에 맞게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으로써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오지 못했고, 오히려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권에 휘둘림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한시적이고 방향성없는 입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인해 현재의 초·중·고등과정의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독창성 계발이라는 각 연령별, 단계별 학습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암기식, 주입식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오로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면 할수록 더욱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 ‘교사폭행’,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과 같은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작용 문제까지 드러내는 안타까운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의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본래의 교육적 본질을 망각한 비효율의 극치를 이루고 지난 30년간 표류하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교육이었음을 솔직히 진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원인으로 우리는 교육정책의 과도한 국가개입, 즉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박탈과 사학의 학생 선발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인해 학교간의 선의의 자율 경쟁체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사학의 자율성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특히, 이같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교육부의 지속적인 월권행위의 이면에는 지난 30년 동안 좌경 사상으로 무장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²⁾(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교육부와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과 협박 등의 실력 행사가 있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전교조 교사들은 꾸준히 세력화를 거듭하여 급기야는 이들이 전국의 교육감 선거에 대거 당선³⁾되어 교육계를 장악하는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이처럼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아닌 사상가들에게 우리의 공교육이 잠식당하여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마침내 공교육의 붕괴라는 처참한 실상을 맞이하게까지 된 작금의 현 교육실태를 우리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인현고등학교⁴⁾ 사태와, 그 동안 전교조 문제로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등의 심각한 교내 문제를 앓아왔던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⁵⁾, 서울 충암고등학교⁶⁾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방적 좌경 사상 주입행위⁷⁾로 인해, 교사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1)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키백과: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3) 중앙일보(2018.6.14.):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후보들 대거당선. 진보성향 당선자 14명 중 10명이 전교조(<https://news.joins.com/article/22715546>)

4) 서울 인현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9길 74 (<http://inhun.hs.kr/index.do>)

5)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sm.sen.hs.kr)

6) 서울 충암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5길 5 (<http://cham.hs.kr/index.do>)

7) 인현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23일 기자회견문 쏘문

등의 각종 일탈행위 등의 심각한 부도덕성이 얼마나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⁸⁾하는 자유 민주주의 시민을 육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교육적 행위이며, 이들의 좌경화, 의식화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교육현장이 오염되고 마비되었지 고발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들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일부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학교 교육현장을 이미 신성한 학습의 장소가 아닌 전교조 교사들의 사상을 학습하는 이념의 사육장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구성하여 더 이상 자신들과 후배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주입시키며 강요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결국 이같은 심각한 전교조 교사들의 공교육 장악사태 등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교육관련 연구들은 전교조의 해악성을 적시하고 교육관련 주제의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고찰을 통해 현안을 진단하는 선행연구나 세미나나 학술회의 등은 전무하였다. 그나마,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교과서 폐기 사태이후로 몇몇 우파진영에서 '성평등', '국정교과서 사태' 등과 같은 주제가 한정된 단편적인 세미나나 학술회의 등은 간간히 있어왔으나 이 역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전문적이며 현학적, 철학적인 담론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교육 수요자들에게 꼭 맞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올바른 교육을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접근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현재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방법

☞ 소주제인 '전교조에 포획된 공교육의 실태'와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1.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그동안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각 시민단체의 대표자들과의 전화 면접 및 인터뷰, 관계자 증언, 관련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방문 및 기자회견장 방문 및 성명서 내용 분석, TV와 신문 등에 보도된 언론 기사 분석 등

2.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

- ① 인터뷰나 면접할 해당 교육관련 시민단체 명단작성
- ② 인터뷰나 면접할 해당 교육관련 시민단체 장과의 접촉 요청 및 일정 상호 협의
- ③ 인터뷰나, 면접 실행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해당 단체의 활동내역들을 검증(언론기사, 보도자료, 홈페이지 방문 등)
- ⑤ 교육관련 언론 기사스크랩 및 언론 기사 내용분석(전교조 활동, 주요 교육관련 이슈)

IV. 현황 고찰

☞ 전교조⁹⁾ 소속 교사들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피해사례 기술에 앞서 현재 공교육 붕괴의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교조의 역사와 기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일명 전교조)는 1986년 5월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이 1987년 9월 27일 전교조의 전신인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 등 **학교민주화 투쟁, 교육악법 개정투쟁**에 앞장서왔다.¹⁰⁾

당시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에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이 단체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라 선언하여 그들의 의도를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과격한 선언문과 각종 연동으로 인해 전교조는 출범 초기부터 친북-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아 전교조 소속 교사 약 1,500명이 1989년에 집단으로 해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고, 해직됐던 교사들은 1999년부터 대거 복직되었다.¹¹⁾

2. 전교조의 주요사업¹²⁾

- 활동1: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처우, 교육환경 개선
- 활동2: **혁신학교** 건설에 앞장
- 활동3: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와 수당화 투쟁
- 활동4: **성평등** 실현
- 활동5: 참교육 실천대회 개최
- 활동6: **무상급식** 실현
- 활동7: 부패사학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 등 법개정**에 앞장
- 활동8: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확대
- 활동9: **진보적 교육감**과 교육위원과 연대한 올바른 정책수립

3. 전교조의 주요 좌편향적 이념활동 내역^{13)*}

2002년 - 여중생 장갑차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살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상당수의 전교조

9)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https://www.eduhope.net/web/eduhope/introduce/program.php?menu_id=1020

10) 전교조가 걸어온 길: https://www.eduhope.net/web/eduhope/introduce/history.php?menu_id=1040

11) 관련기사:<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

12) 전교조 주요사업: https://www.eduhope.net/web/eduhope/introduce/core.php?menu_id=1090

13) 관련기사:<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

소속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 가산점**을 준 교사들도 있었다.

*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논란이 일자 전교조는 역시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계기 수업'을 실시했고, APEC 정상회의 및 한미 FTA 등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전교조는 최근 수년간 단순한 좌파성향 단체에서 한 발 더 나가 **중북성향**으로 치닫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유엔(UN)사-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2005년**-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 씨가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¹⁴⁾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범민련에서 만든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¹⁵⁾

4. 전교조의 실제 이념교육 활동사례(전교조 홈페이지 내에서 세월호 교육을 중심으로)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활동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 전교조에서는 '**416 잊지않고 행동하기**'라는 구호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전개하였다.

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발간¹⁾

☞ 416 교과서란?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제작함.**

다음은 서울 강서구 방원중학교 416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영호 교사 인터뷰

- <416교과서>를 발간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해서...

- 어떤 분들이 모여, 어떤 과정을 거쳐 발간되었나?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계기 수업'을 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교조 416특위를 중심으로 경험과 자료를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과정 초안을 만들었고, 여러 차례 집필과 감수를 거쳤다.**

- <416교과서>가 초등용과 중등용 2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교과서 구성은?

<416교과서>는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각각 발간됐다. 참사의 진실 범위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고, '교과서'라는 명칭을 두고 고민이 깊었다. 모두 4단원으로 '**기억과 공감**', '**진실 찾기**', '**정의 세우기**', '**약속과 실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14)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0074.html

15) 나무위키: <https://namu.wiki/w/전국교직원노동조합>

1단원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의 시작인 기억에 관한 내용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의 하루와 배에 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 참사 이후의 삶에 대한 성찰이다.

2단원에서는 세월호는 어떤 배이고 왜 그 큰 배가 가라앉았는지, 가라앉은 순간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지를 탐색했다. 선장과 선원들, 해경,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배 안의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순간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3단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온 분들의 노고를 살피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책임질 주체를 고민했다. 아직도 책임의 주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4단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들어하는 이웃과 더불어 손잡고 **'기억과 치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소개했다. 치유와 연대의 힘에 고마움을 느끼며 진실과 정의 찾기에 헌신하는 유가족의 삶과, 그분들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많은 이들을 다뤘다.

-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첫째, 진실의 범위를 정하기가 힘들었다. 아직 진행형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정부의 발표와 재판 결과만 가지고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점에서 2단원 '진실찾기' 작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였다.

둘째, '교과서'라는 명칭이다. 교과서에 대한 통념은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핵심적 지식만을 정선하여 담은 책'이다. 우리가 준비한 내용에 비해 이름이, 담은 형식이, 너무 크고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서'라는 말을 상징적인 표현으로라도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인용된 글과 사진의 저작권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다. 더 좋은 텍스트나 사진들을 놓친 것이 많아 못내 아쉽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은?

교과서 감수 작업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간접적으로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였다.

- 앞으로 <416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416교과서**>는 수업과 활동을 돕기 위한 교사용 책자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도 보급된다. 학교와 학생들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충분히 재구성하여 사용하면 좋겠다. 또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에, 또는 여러 교과와 교사들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회, 동아리 활동 시간에 활용하기 바란다."

- 끝으로 교과서를 구입은 어떻게?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미 책자를 발송 중이다. 개인, 단체 구매도 모두 가능하지만, 여러 권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선물하거나 학교 내에서 공동 활동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회·분회 단위의 결의를 통해 함께 구입하여 활용하면 더욱 좋겠다."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ews.v.daum.net/v/20160314143303937>)

☞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세월호 교육용 교재로 2016년 3월22일 정식 출간됨. 하지만 이 '416교과서'는 당시 교육부의 발빠른 대처로 사용금지 조치(3월26일)되었음¹⁶⁾

16) <https://sixfy.tistory.com/148>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결론 짓고 각 시도 교육청에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활용한 게가 수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와 교사를 엄정하게 조치 할 것'

교육부가 밝힌 교재 사용금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가 국가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가치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사용될 경우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금지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이나 특정 언론 및 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지나치게 많고 비교육적인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 실제 소개글:

<416교과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며, 무너져가는 정의를 회복하고 나아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작은 일들을 찾아보고 다짐하자는 흐름으로 제작했습니다. 초, 중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하였으며 적절한 편집을 통해 고등학생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교과시간에도 재구성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자유학기제와 프로젝트 수업, 창체, 학생회, 동아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 1권 가격 : 5000원(입금계좌 : 국민 7*4-**-*****-4*7 전교조)¹⁷⁾



[보도자료]

전교조,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발간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헌정 행사 안내
- 2016.3.22.(화) 안산

② 세월호 주제와 관련된 노래 집중 배포¹⁸⁾

17) 교과서 신청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7EpRQXPbNXo0yARSk9dVzjZzXz0exuN0fjQf5o8rBIHZtQw/viewform?c=0&w=1>

18)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12&page=17&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26&page=11&menu_id=4020

<더이상>-작사작곡 윤민석¹⁹⁾,
 <애들아 올라가자>-작사작곡 윤민석²⁰⁾,
 <눈물이 난다>-작사작곡 윤민석²¹⁾,
 <금요일엔 돌아오렴>-작사 작곡 윤민석²²⁾,
 <진실은 침몰하지않는다>-작사작곡 윤민석²³⁾,
 <약속해>-작사 작곡 : 윤민석²⁴⁾,
 <잊지않을게>-작사 작곡 : 윤민석²⁵⁾,

☞ 작곡가 윤민석은 누구? : 민중가요 작곡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노동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등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3년을 복역²⁶⁾.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번 구속된 바 있다. <전대협 진군가>, <한민전 찬가>, <반미 출정가1>, <한민전 10대 강령>, <애국의 길>, <전대협 찬가>, <오 통일이여>, <결전가>, <연대투쟁가>, <백두산>, <서울에서 평양까지>, <Fucking USA>, <전사의 맹세>, <촛불을 들어라>, <민주통합당 당가> 등 좌편향 이념곡 다수 작곡함. 특히, 박근혜대통령 탄핵가²⁷⁾가인 <이게 나라냐ㅅㅂ>을 작곡함.

이게 나라냐ㅅㅂ

윤민석 작사/작곡

1.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 근혜 순실 명박 도둑 간신의 소굴 /
범죄자 천국 서민은 지옥 /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
2. 2014년 4월 16일 /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 /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
3.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
쇼 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
4.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 / 다짜끼마사오까지 불러내어도 /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 좋은 말할 때 물러나거라 /

* 후렴

하야 하야 하야 하야하여라 /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여라
 하옥 하옥 하옥 하옥시켜라 /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19) <https://ceo2002.tistory.com/1956>

20) <https://woephilzine.blog.me/220885473085>

21) <https://blog.naver.com/psps0102/80211769177>

22) <http://bit.ly/1HbGBm3>

23) <http://bit.ly/17UZfR6>

24) <http://bit.ly/1kGketv>

25) <http://bit.ly/1ycDU1w>

26) 한계레 기사: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857.html

27) <https://ceo2002.tistory.com/2410>

특히, 이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친근감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세월호 희생자 명단을 전부 노래가사로 외워서 따라 부르도록 유도함²⁸⁾

더 이상

작사,
작곡:윤민석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을
위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더 이상 미안하다 않으리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
더 이상

그것은 저들이 바라는 일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일
결국엔 우리가 다 죽는 일
그것은

잊지마라 잊지마라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을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앓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작사 작곡: 윤민석

Chords: G, G/B, Am, Em/G, F, C/E, Dm7, G, (C7)

③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애도 계기수업 진행²⁹⁾

☞ 계기수업이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기사, 사설, 칼럼 등의 다양한 부교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라는 의미로 전교조에서 실시. 주로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되었다.³⁰⁾

28)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8&page=7&menu_id=4020

29)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15&page=16&menu_id=4020

30) 관련기사: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66>

가. 계기수업안 배포현황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

년도	자료 수	조회수	평균 조회수	주요 이슈
2007	34	29,168	858	대선, 한미FTA,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노동절, 학생인권, 남북정상회담, 광우병
2008	9	10,635	1,182	총선, 6월 민주항쟁, 4.19혁명, 독도
2009	-	-	-	
2010	3	2,901	967	전태일40주기, 4.3평화수업
2011	4	5,560	1,390	5.18민중항쟁, 6.15선언
2012	26	23,235	894	4.3항쟁, 4.11총선, 4.19혁명, 5.1노동절,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15계기수업, 학생의날, 학생인권조례, 비정규직, 18대대선,
2013	29	100,074	3,451	4.3항쟁, 4.19혁명, 5.1노동절, 5.19민중항쟁, 6.10민주항쟁, 학생의날(전태일), 철도민영화,
2014	17	33,633	1,978	후쿠시마원전사고, 4.3항쟁, 3.15부정선거, 세월호애도, 5.1노동절, 5.18민중항쟁, 6.4지방선거, 학생의날
2015	27	48,788	1,807	3.11후쿠시마원전사고, 4.3항쟁평화수업, 4.19혁명, 5.1노동절,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15남북공동선언, 학생의날
2016	10	150	15	3.11후쿠시마원전사고, 4.3평화수업, 4.19혁명, 4.26체르노빌, 4.16세월호사건
(합계)	159	254,144	1,598	

나. 전교조 배포 계기수업안 주제별 빈도수

주제별	배포빈도수	주제별	배포빈도수
5.18 민중항쟁	23개	장애인/여성	13개
5.1 노동절/비정규직/철도민영화	17개	6.15남북공동선언/반전평화/남북통일	11개
대선/총선/선거관련	16개	3.15부정선거/4.19혁명	7개
후쿠시마원전사고/탈핵/환경/밀양송전탑/물의날	16개	6.10 민중항쟁	6개
학생의날/전태일/인권조례	15개	기타	21개
제주 4.3 항쟁/평화수업	13개	(합계)	(159개)

다. 기타 주제들 : 한미FTA, 국가보안법, 독도, 어린이날, 교과서국정화, 새만금, 광우병, 아이티 지진, 4.13임시정부수립, 세계인의날, 세월호애도, 참교육, 다문화, 사회공공성, 대륙철도 등...

라. 편향성 논란에 대한 참고자료

주제별	배포빈도수	주제별	배포빈도수
5.18 민중항쟁	23개	장애인/여성	13개
5.1 노동절/비정규직/ 철도민영화	17개	6.15남북공동선언/ 반전평화/남북통일	11개
대선/총선/선거관련	16개	3.15부정선거/4.19혁명	7개
후쿠시마원전사고/탈핵/ 환경/밀양송전탑/물의날	16개	6.10 민중항쟁	6개
학생의날/전태일/인권조례	15개	기타	21개
제주 4.3 항쟁/평화수업	13개	(합계)	(159개)

(기사글 발췌: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66>)

마. 전교조 계기수업이 편향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

1) 계기수업의 주제나 방향이 선거와 무관치 않은 활동이라는 점

-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41개의 계기수업 안을 집중적으로 기획·배포함
- 2008년 4월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9개에 그쳤던 계기수업안 배포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한해에 27개나 만들어져 집중 배포됨

2) 계기수업의 주제/시기가 전교조의 사회 정치적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나아가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 한미FTA, 국가보안법, 대선/총선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전교조는 뚜렷한 자신들의 입장을 시국선언이나 거리투쟁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기수업을 시도해 옴
- 전교조는 좌파 노동운동의 극단에 서 있는 노조임을 주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계기수업을 가장 역점적인 주제로 해마다 다루어 옴

④ 학교안에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교육을 실시
(교육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테이블운동”²⁾)

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동조단식 참여 및 독려³¹⁾(조수진 교사의 학생과 함께 한 노란테이블 활동기³⁾ 참조)

⑥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벨>영화를 청소년 단체 관람으로 독려³²⁾

⑦ 전교조의 각지부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세월호 행동관련 지침 하달

(세월호 200일 집중 실천⁴⁾, 세월호 500일³³⁾수업, 800일 맞이 수업³⁴⁾, 900일 맞이 수업³⁵⁾)

⑧ 세월호 200일을 맞이하여 초. 중. 고등학교별 구체적인 수업지침하달³⁶⁾

<전교조 홈페이지 내의 실제 공지 내용>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 ㄱ'200일ㄱ'이 됩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생명의 존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중실천 주간으로 선포하고 적극 행동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4차 공동수업자료는, 우리의 교육을 바꾸는 ㄱ 개의 행동 노란 테이블을 학생들과 진행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수업 속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수업자료는 초등용과 고등학생용 2가지를 제작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엽서(소속 지부와 지회에 요청)와 노란테이블 톨킷(본부 참교육실에 요청)은 제공해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7&page=12&menu_id=4020

(초.중등용 수업지침서, 고등용 수업지침서 별첨⁵⁾)

⑨ 세월호 관련 우수활동 사례기 홈페이지 게시하여 수업 참여를 독려

(박춘애 교사 실천기 별첨⁶⁾)

⑩ 세월호 관련 청소년 사진 UCC 공모전 개최

(가만히 있지 않겠다! ㄱ진실을 찾아라ㄱ' 청소년UCC 공모전 안내 포스터 별첨⁷⁾)

⑪ 광화문 세월호 천막 지킴이활동 참여 및 독려

(전교조 교사 정보람의 광화문 지킴이 활동 보고서 별첨⁸⁾)

⑫ 새학기맞이 전교조 교사 수뇌부 좌담회 개최

(좌담회 주제: '4.16 잊지않고 행동하기' 어떻게 할까? 좌담회 회의록 별첨⁹⁾)

⑬ 전교조 416특별위원회(02-2670-9452)에서 제작된 <노란톨킷>제작 판매

(노란톨킷: 1세트안에 노란테이블보 5장, 감정카드, 발견카드, 상상카드, 과제카드, 약속합니다 카드 50매 동봉. 최대 10명씩 5모듬이 그룹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작됨. 1세트 가격 25,000원)

(<노란톨킷> 증거사진 별첨¹⁰⁾)

31)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54&page=13&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8&page=12&menu_id=4020

32)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08&page=11&menu_id=4020

33)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3&page=7&menu_id=4020

34)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4&page=6&menu_id=4020

35)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56&page=5&menu_id=4020

36)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7&page=12&menu_id=4020



- ⑭ 전교조에서 제작한 **노란틀킷 사용법과 홍보영상** 게재³⁷⁾
- ⑮ 수업 중 초, 중, 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노란리본 만들기 수업**³⁸⁾
- ⑯ **초등 전학년에 걸친 세월호** 관련 수업진행 유도 및 공동수업안¹¹⁾
- ⑰ 중.고등용 세월호 관련 **선체인양 여론조성을 위한 수업진행** 유도 및 공동수업안¹²⁾
- ⑱ 2014년도 한겨레 신문에 **교사 기획기사** 글 게시³⁹⁾
- ⑲ 세월호 참사 1주기 **전교생 대상** 추모제 개최- 남악중학교¹³⁾
(예: 시 낭송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등)
- ⑳ 세월호 특별수업 외에 타 **교과에 세월호 수업**을 연계시킴⁴⁰⁾
('도덕교과'와 '진로와 직업교과'에 맞춘 다양한 추모, 공동수업안¹⁴⁾,
사회, 국어, 미술, 음악과 연계된 공동수업안¹⁵⁾)
- ㉑ 수업 중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실명과 사진** 수업중 **전원공개**¹⁶⁾
- ㉒ 좌편향 기사, 도서 읽고 **독후감 쓰기** 독려¹⁷⁾
(예: "뉴스타파 -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2014.7.24.)",
뉴스타파 김진혁 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기다리래(2014.5.1.),
[김어준의 파파이스 다큐] 커튼 뒤의 사람들
"내릴 수 없는배-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우석훈(웅진지식하우스),
"눈먼자들의 국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문학동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생각의 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세월호 추모시집" 고은
"못난 아빠-이제야 철이 드는 못난 아버지입니다" **김영오/박태옥**(부엔리브로)

37)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14&page=11&menu_id=4020

38)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27&page=11&menu_id=4020

39)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59&page=10&menu_id=4020

40)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41&page=10&menu_id=4020

- ㉓ 유가족용 및 **청와대 민원제기용 엽서보내기 운동** 전개⁴¹⁾
- 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¹⁸⁾
- ㉕ 세월호 **희망 뱃지 판매**(교사용 참고)⁴²⁾
- ㉖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 동작 따라하기 행사**⁴³⁾
- ㉗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오준호와의 대화**⁴⁴⁾ 개최
- ㉘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활동 <**416교실>활동** 전개⁴⁵⁾
- ㉙ 416**기억과 약속의 길걷기 행사** 참여⁴⁶⁾
- ㉚ 416 500일 단원고 **희생자 기억하기 수업**진행⁴⁷⁾
- ㉛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토요문화제 주관하여 개최**⁴⁸⁾
- ㉜ 세월호희생자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⁴⁹⁾
- ㉝ 세월호 관련 **성명서 발표**⁵⁰⁾
- ㉞ 단원고 **교실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⁵¹⁾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도 잊혀집니다’ 포스터와 서명지¹⁹⁾참조)
- ㉟ 지회/지부/학생과 함께보는 **다큐 <나쁜 나라> 행사** 개최⁵²⁾
- ㊱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⁵³⁾

- ㊲ 416 2주기 집중실천 학교 <**노란리본가게**> **운영** 독려⁵⁴⁾

☞ 노란 리본가게:

운영 방식 : 특정한 공간에 노란 리본바구니를 마련하고 노란 리본과 노란 뱃지, 노란 팔찌 등을 비치 (학생회와 함께 운영)하여 일상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가게 운영.

41)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38&page=10&menu_id=4020

42)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39&page=10&menu_id=4020

43)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63&page=9&menu_id=4020

44)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86&page=8&menu_id=4020

45)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87&page=8&menu_id=4020

46)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0&page=8&menu_id=4020

47)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3&page=7&menu_id=4020

48)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499&page=7&menu_id=4020

49)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0&page=7&menu_id=4020

50)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6&page=7&menu_id=4020

51)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5&page=7&menu_id=4020

52)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03&page=7&menu_id=4020

53)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11&page=6&menu_id=4020

54)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14&page=6&menu_id=4020

㉔ 416 인권선언 운동 동참⁵⁵⁾

㉕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소송진행⁵⁶⁾

㉖ 416 청소년 캠프 실시⁵⁷⁾

㉗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자들 지지 및 의원실 전화와 메일 항의운동 전개⁵⁸⁾

☞ 더민주 당사 농성자들 요구사항

- ①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 ②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 ③ 국회의장은 세월호 특검안을 직권상정하라
- ④ 더불어민주당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라

㉘ 416가족협의회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 광고기금 모금운동 전개⁵⁹⁾

㉙ 학생들과 함께 노란나비 접기 행사진행⁶⁰⁾

☞ ①행사취지(전교조 홈페이지 설명) : 1000일의 상징적 의미. 천 번을 접어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소원을 위해 천 번의 나비를 접는다.

②행사기간: 2016년 10월 1일 ~ 2017년 1월 6일

③진행방법(예시 안)

학교별로 100일 동안 1000마리의 노랑나비를 접는다→접은 노랑나비를 상자에 담는다.

④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에 1000개의 상자를 전시한다(광화문이나 합동분향소)

⑤100일동안 천번을 접는다는 '천번의 나비' 약속사진을 SNS에 올린다(공개로 대중적 확산 시도)

㉚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실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한겨레 광고 게재⁶¹⁾

☞ ①광고취지: 9월30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실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을 견인하고,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특조위 활동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냄.

②게재 일시 : 2016. 9/27~9/28

③게재 방법: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면

㉛ 세월호 3주기 현수막 및 피켓 제작배포⁶²⁾(학교현장 활용용)

㉜ 세월호 기억 티셔츠 디자인 공모⁶³⁾

55)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18&page=6&menu_id=4020

56)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1&page=6&menu_id=4020
온라인 서명:<https://docs.google.com/forms/d/1dz6G9P98J2Io91yOAgQB5u0HNGsbQLVd59-PKduZglE/viewform?c=0&w=1>

57)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6525&page=6&menu_id=4020
온라인 참가신청: <https://goo.gl/eZ3Kq4>

58)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28&page=5&menu_id=4020

59)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39&page=5&menu_id=4020

60)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57&page=5&menu_id=4020

61)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061&page=5&menu_id=4020

62)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3&wr_id=207967&menu_id=2030

63) 전교조 홈페이지 내: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468&page=4&menu_id=4020



기억 안락

◎ 신주옥 작가

세월호 기억 티셔츠 디자인 공모 안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세월호를 잊지않는
기억' 티셔츠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상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기억' 티셔츠의 디자인 공모에 참여해주세요.

★

- ◎ 공모기간_ 4월 26일(수) ~ 5월 8일(월) 오후5시
- ◎ 공모대상_ 전교조 조합원, 학생
- ◎ 티셔츠 유형_ 노랑색 반팔 라운드 티셔츠
- ◎ 디자인 주제_ 세월호 / 기억 / 진실 / 애통 등
- ◎ 신청방법_ 메일로 신청(전교조416특별위원회, hyug2@hanmail.net)
- ◎ 문의_ 전교조 416특별위원회
(권혁이 02-2670-2351, 010-7656-1876)

※ 디자인 당선자에게는 '416단원교약전(1권 12권)' 을 드립니다.

④7 세월호 연극 '그와 그녀의 옷장' 후원



2017. 4.13(목) 오후 7시

장소_ 안산 청소년수련관 1층 열린마당

주최: 오세현, 안소, 김태현, 최민, 김정은, 박기, 김광민, 김준자, 김성남, 김순익, 이희재, 박유신, 김정배, 스노, 오승이, 조병현, 유성국, 이서진, 변호진

후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산지회

그와 그녀의 옷장

공연문의
김정배
010-4710-7041

6월에서 9월에 있습니다.
공연 전후 후원과 기부
가능합니다.

④8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선언²⁰⁾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선언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교사들은 학생과 동료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세월호 탑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그저 텔레비전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평생의 상흔으로 남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책임자들을 기어코 처벌하겠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다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활동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세월호를 이야기했습니다. 참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었고 퇴진하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 기소, 벌금과 징계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박근혜는 파면당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행동했던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정부는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감추고 방해했습니다. 국회입법청원 사상 유례없는 650만 시민의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집권세력의 방해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특별법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조기 강제 종료했습니다. 대법원은 세월호를 인양해 정밀조사해야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인양을 늦추었고 가장 중요한 세월호는 낱알이 훼손되었습니다. 1700만 촛불 광장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요구할 때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외침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촛불 시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 5가지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전체를 정밀 조사하여 침몰의 원인을 밝혀라!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지속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한 선원과 그 지시를 내린 청해진 해운
직원을 수사하고, 승객 퇴선 명령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을 재수사하라!
침몰하던 세월호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승객 퇴선 명령도 하지 않은 해경 123정과 511, 512, 513, 703호에 대해 수사하라!
1. 세월호 침몰 당일 통영함 출동 관련 3자 합의각서를 작성한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해군 담당자를 조사하라!
1. 총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고, 박근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새로운 교육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낱알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날까지 유가족,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1. 우리는 학교에서, 거리에서 세월호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청소년과 함께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을 바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할 것이다.

2017년 4월 일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교사 선언 참여자 일동
○○○ 외 전국의 교사 ()명

㉔ '416 교과서' 금지조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세월호 관련 각종 수업자료 개발 및 수업활동 21)

(416기억수업 초등수업지도안, 416기억수업 중등수업지도안, 416기억수업자료:시,영상,기사,만들기 등, 416기억수업자료-교사들이야기, 416기억수업-학교별 실제활용사례모음)

㉕ 세월호 인양장소 방문 및 유가족 간담회 개최 64)

4.16 마주하기

세월호 인양장소 방문과
유가족 간담회

2017. 6. 17(토) 14:30~ 목포 신항

- ★ 서울 출발 : 6. 17(토) 오전 8시 30분 서울역
- ★ 참가비 : 1만 5천원 (식사와 간식비)
(다르게 출발하시는 선생님들은 14:30까지 목포신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 ★ 참가신청 : 문자메시지(지부/성명) - 010-7656-1876(416특위 권혁이)

☆ 그외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416마주하기, #617목포신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16특별위원회

㉔ 세월호 아카데미 홍보⁶⁵⁾

㉕ 세월호 팩트체크 북콘서트 개최⁶⁶⁾

416교사약속지킴이 열번째 워크샵

세월호팩트체크 북콘서트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밝혀진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세월호 가족과 416연대 회원,
시민, 국민조사위원회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시 10월 21일 13시 30분
장소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30~15:10	세월호팩트체크 북콘서트, 국민조사위원회
	15:30~17:00	416운동의 현황과 과제 및 교사 실천 활동 논의, 416연대
	17:00~18:30	웃음터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https://goo.gl/cj79JN>
문의 권혁이(전교조 본부 416특위장) 010-7656-187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5) 전교조 홈페이지: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577&page=3&menu_id=4020

66) 전교조 홈페이지: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668&page=3&menu_id=4020

㉓ '전교조 416다이어리' 제작 판매⁶⁷⁾

☞ 2018년 416다이어리 신청 안내

① 416다이어리 제작 개요

- 1) 권당 단가 : 6,700원(배송비 포함)
- 2) 다이어리 사이즈 : 약21.5cm(가로)×13.7cm(세로)
- 3) 표지 재질 : 가죽(예년 합성피혁 표지재질의 내구성이 취약하여 가죽으로 변경)
- 4) 내지 분량 : 180쪽 내외

② 신청 방법

- 1) 주문단위 : 지회/지부 단위로 신청가능(분회나 별도 단위의 신청은 사전 연락바람)
- 2) 신청 마감 : 2017년 11월 30일(이후에도 연장 가능)
- 3)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https://goo.gl/DNwDwU>)
- 3) 대금 결제 방법 : 지회/지부 교부금 공제

㉔ 인천고등학교 전교조 교사 김애경의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실제사례⁶⁸⁾

☞ 이 사례를 통하여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서울 인헌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육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기에 사례를 수록하였음.

☞ 전교조 홈페이지 교사 본인이 직접 올린 글:

인천고 김애경입니다.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안입니다.
잊지않을게.. 노래를 부르며 다짐했지만, 정말로 3년이 될 때까지,
세월호 인양이 되지 않고, 진실도 밝히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3주기 수업안을 준비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다보니,
1주기 수업지도안 만들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법, 공감하는 법에 초점을 두었더라구요.
3주기 기억수업에서는
그동안 기억해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
촛불항쟁을 이끈 원동력이 되어준 세월호 투쟁에 대한 고마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았습니다.

1. 도입 - 잊었나요? (영상 - 손석희 앵커브리핑, 세월호 참사, 끝나지 않은 기다림)
2. 기억 - 생존학생 편지(영상 - 생존학생 편지 - 3년이 지나도 전혀 무너지지 않아.)
3. 공감 -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거야(영상-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거야. Yellow Ocean 치타, 강성환 노래)
- 기억해줘서 고마워요.(영상 -함께 아픔 나눈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4. 나눔 - 포스트잇에 요구안 쓰기(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해요!")
- 댓글 쓰기 (경복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 악플을 선물로)

67) 전교조 홈페이지 :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723&page=2&menu_id=4020

68) 전교조 홈페이지 :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446&page=4&menu_id=4020

☞ 인창고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지도안-실제22)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인창고 [사회과, 창체, 국어과 공동수업]

1차시	주 제	시간	준 비 물, 영상
도입	잊었나요?	3분	영상 #1 [손석희 앵커브리핑] 세월호 참사 ...끝나지 않은 기다림 [2분 48초] https://youtu.be/LbHttpTY_Y4
기억	생존학생 편지	7분	영상 #2 생존학생 편지- 3년이 지나도 전혀 무너지지 않아. [6분 41초] https://www.youtube.com/watch?v=uvd8SkNYe4Q&index=53&list=PLGM7KXQEK-LUje0ZvUxd_V3m-x6cDI_ue
공감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거야.	7분	영상 #3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거야.. Yellow Ocean (치타, 장성환) [6분 14초]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kjkluv&logNo=220896751121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3분	영상 #4 함께 아픔 나누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분 31초] https://www.youtube.com/watch?v=S_Q5M5nYKbl&t=6s&list=PLGM7KXQEK-LUje0ZvUxd_V3m-x6cDI_ue&index=54
나눔	모둠활동 (4명) 1) 포스트잇에 요구안 쓰기 2) 댓글쓰기	30분	영상 #5 지식채널e - Knowledge of the channel e 가만히 있으라는 말 [5분 12초] https://www.youtube.com/watch?v=cWdFtoV8pcM&feature=youtu.be 1)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나라를 원해요!” 요구안 쓰기 [포스트잇] 2) 댓글 쓰기 - 모둠별로 한 주제씩 선택하여 활동 1. 경북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2.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쓴 글 3. 악성 댓글을 선한 댓글로

☞ 인창고 세월호3주기 기억수업 활동지23)

인창고등학교 1학년 ()반 ()번 이름()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골라 댓글을 써봅시다. 그리고 쓴 내용을 SNS에 올려봅시다.

진실을 인양하라



1. 경북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경북대학교 대나무숲
#16902번째 이야기

대숲. 저는 글을 잘 못 쓰지만 오늘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한 편 쓰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는 너에게
안녕. 오늘은 너랑 나랑 만난 지 1163일 째 되는 날이야.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오늘따라 너와의 100일이 머릿속에 계속 아른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넌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100일 때 수학여행 가는데, 가지 말까?”
난 “수학여행이잖아. 친구들과하고 재밌게 놀다 와. 주말에 만나면 되지.” 라 말했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 그리고 남들 몰래 사귀고 있던 입장이라 나름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아.
그렇게 넌 수학여행을 갔고. 난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
정규 시간이 끝나고 휴대폰을 받았을 때 너한테서 여러 개의 록이 왔었지.
“어지간히 심심했나 보네.ㅋㅋ”라고 넘기려 했는데...내용이 심상치 않았어.
“00인도야 너도 해보해어”



2.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큰 아픔이고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은 세월호의 아픔과 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 아이들의 희생과 부모님들의 고통, 거기에 공감한 국민들의 분노가 광화문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타나고 하는 절망과 분노가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유민아빠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허허롭게 웃는 그의 윤기빠진 얼굴에서 수많은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탄핵결정문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판단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직무 중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떤 국정농단도, 헌정유린도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죄, 그 진실을 은폐한 죄, 그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봄을 즐기려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평화로운 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세월호와 미수습자를 인양해 아직도 팽목항을 서성이는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3. 아래 세월호 관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중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선한 댓글로 바꾸어 봅시다.

① 난 이해가 안 간다. 생판 모르는 남이 죽은 게 어째서 슬픈 거지? 난 그들에게 죄지는 적도 없고, 그들도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 슬픈 감정이 왜 생기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배 사고 나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② 00오빠들이 먼저지. 몇 명 죽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얏. 방송은 그냥 할 것이지. 싸다 죽어라.

③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좀 그만하자. 안됐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산 거다. 살아있는 사람 피 짜내 세금 걸어서 배 인양하자고? 하고 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

④ 3년씩이나 끌었으면 그만 할 때도 되었다.

청소년이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참여 방법

- 1** 학생들과 함께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or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으로 10행시를 짓는다!
- 2** 학생들의 10행시 작품을 종이 등에 크고 굵게 써서 인증샷을 찍는다! (손가락만 나와도 OK!)
- 3** 학생들의 인증샷을 모아서 11.17(금) 12시까지 보내주면 끝.
-보낼곳: 416특별위원회 or 전교조 조합원 헬방 메일 choijuyeon0206@nate.com 으로~

여러분의 10줄이 세상을 바꿉니다!



* 학생들의 10행시 인증샷은 모아서... 416특별법 본회의 상정을 앞 둔 2017.11.22(수) 14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416특별위원회

⑤6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세월호 다큐멘터리 <망각과 기억> <망각과 기억2: 돌아봄>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를 홈페이지에 홍보⁷⁰⁾

⑤7 세월호 4주기 공동수업안 제작 배포⁷¹⁾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초등(2018),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중등1(2018),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중등2(2018)²⁴⁾)

⑤8 416세월호참사 4주기 교실과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 붙이기⁷²⁾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생명이 존중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 지회

70)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869&page=2&menu_id=4020

71)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1&page=2&menu_id=4020

72)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4&page=2&menu_id=4020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5&page=2&menu_id=4020



㉟ 416세월호참사 4주기 엽서제작⁷³⁾



(엽서앞면)

- ㉠ 2018년 세월호 4주기 계기수업부터는 다른 이슈들과 연계된 수업으로 진행⁷⁴⁾
 (세월호 참사 4주기 계기수업, 4.3 제주항쟁 이해하기, 4.3영상제주도 4.3사업소 편집본.mp4, 제주4.3추도사노무현대통령 편집본.mp4, 헌법 제1조 2항변호사-송강호.mp4²⁵⁾)

73)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06&page=2&menu_id=4020

74)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1930&page=2&menu_id=4020

세월호 참사 4주기 계기수업

[개요] 4.3 제주 항쟁과 4.16 세월호 참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권력' 가지고 수업의 흐름을 만든다.

1. 수업 목표

- 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통해 ‘국가 권력’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나.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있다.
- 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다.

2. 수업 시간: 45분

3. 수업 장면: 자기 생각 말하기

4. 수업 흐름: ppt 참고

[들어가기]

- 4.3과 4.16을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 말해주기

[활동하기]

- ① 4.3 동영상(제주도4.3사업소)과 4.16 동영상(당신의 바다, 우리의 바다) 보기
- ② 4.3과 4.16의 공통점(비슷한 점) 말해 보기
- ③ 추도사 동영상(제주4.3추도사)보기
- ④ 추도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보기

[정리하기]

- 헌법 제1조 2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 (동영상-영화 '변호사' 장면 중)

5. 참고 사항

- 가. 수업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폭력을 이해하고, 그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 나. 4.3과 비교해서 세월호 참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같이 논의합니다.
- 다. 위의 자료를 각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⑥1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관련 교육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⁷⁵⁾

75) 전교조 홈페이지 내: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202213&page=1&menu_id=4020

5세월호참사 5주기 전교조 집중실천 행동

- 세월호 노란 리본 달기 "다시 노란리본"**
 - 학교 담장 현수막 / 교실 현수막 디자인 제공
-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과 약속 공동수업**
 - 공동수업자료(416잊지않고 기억하기 게시판 수업자료 나누기)
 - 수업 활동자료 안내(엽서) 디자인 제공
- 학교/지회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체험 "다시 기억공간에 서다"**
 - 안산 기억과 약속의 길 걷기
 - 목포신항 세월호 탐방
 - 광화문 기억공간 방문
- 416세월호참사 5주기 청소년-교사 도보행진 "별이 된 아이들과 동행"**
 - 일시: 4월 13일(토) 13시 ~ 17시
 - 행진 코스: 국회 앞 → 서강대교 → 서강대역(휴식) → 신촌오거리 → 광화문 → 청와대
 - 모이는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 세월호참사 영화 "생일" 지역별 공동상영**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문의: 416특위 02-2670-9452)
-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문화제 참가**
 - 수도권 추모문화제: 19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광장
 - 지역별 추모문화제 참가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하기**
 - 종이서명지 내려받기
 - 온라인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kn2XIF2TvQMkUyaF3>

5. 전교조 주요 피해학교 사례

☞ 다음은 현재 전교조 문제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인현고등학교⁷⁶⁾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⁷⁷⁾, 서울 충암고등학교⁷⁸⁾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각 시민단체의 대표자들과의 전화 면접 및 인터뷰, 관계자 증언, 관련 시민단체의 홈페이지 방문 및 기자회견장 방문 및 성명서 내용 분석과, TV와 신문 등에 보도된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① 서울 인현고등학교 사태 - 현재 진행중

☞ 인현고등학교 전교조 소속교사(김은형:국어과, 서인호:화학과, 문창규, 최용주:체육과, 안재분, 성명희, 김창현:사회과)들이 교내 공개된 장소에서 반일, 반미, 페미니즘, 동성애 등 사상적으로 편향된 이념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복종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서슴없이 '일베'라는 딱지를 붙여 모욕과 명예훼손, 강요와 협박을 하자, 이에 시달려왔던 인현고등학교 일부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수호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 오염된 교육현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019. 10. 23.)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더 이상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들과 후배들에게 편향된 주입교육을 시키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⁷⁹⁾

76) 서울 인현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9길 74 (<http://inhun.hs.kr/index.do>)

77)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sm.sen.hs.kr)

78) 서울 충암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5길 5 (<http://cham.hs.kr/index.do>)

79)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특히,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군은 “신성한 교육현장은 이제 학생들이 마루타나 다름없고, 의무 교육기간 동안에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로 개조당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왕따를 조장 당하고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 연행을 듣거나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치교사들의 종속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하였다.⁸⁰⁾

사례1) 반일구호 제창강요⁸¹⁾

2019년 10월 17일(목)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교장 나승표, 전교조 교사 김은형, 서인호, 문창규, 최용주 등은 마라톤 대회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고 지시하며, 반일운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반일과 무관한 문구를 적자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라며 혼을 내고 문구를 다시 수정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적어내도록 강요하였다. 그 이후 학생들에게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제하였으며 반일사상 문구를 학생들의 몸에 붙이고 마라톤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였다. 심지어, 이를 거부하던 학생들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다.

사례2) 조국 가짜뉴스 믿으면 개. 돼지⁸²⁾

교사 안재분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당일,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를 두고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라는 뉘앙스로 언급하자, 이에 학생들이 교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가짜 뉴스 믿지 마! 자기 아내 압수수색 하면 기분 좋을 것 같냐? 검찰이 자기 가족들 조사해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사퇴시킨 거야. 가짜 뉴스 믿는 사람들은 다 개돼지야!”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사례3) 교사와 다른 견해는 일베로 규정⁸³⁾

학생 권범준이 故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을 읽고 인물평을 하기를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잘 한 것 같다.”라고 하자, 교사 성명희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일베냐?”라며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며 모욕을 하자, 이에 해당 학생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 학생은 그후 친구들로부터 ‘일베’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후 더 이상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피력하기를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례4) 타학교에서도 지속적 정치편향 수업 및 반미사상을 주입해온 교사 김은형의 행적들

과거 2005년 5월 서울시내 중학교 재직 때는 수행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며 ‘할아버지의 필통’이라는 반미연극을 관람하도록 유도⁸⁴⁾하였고, 2005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책거리’로 교

80) 인현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대표 김화랑학생의 성명서 全文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10300627067635/?sfnsn=mo>

81)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2)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3) 학생수호연합대표 최인호학생의 기자회견문 全文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5088&C_CC=AZ

84)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from=kakao>

실에서 수업 중에 향을 피우고 귀신을 쫓는 제사와 굿을 지내도록 하자 수업에 참여했던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수업이) 지옥 같았다'는 평을 하였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수업후기를 일기형식으로 기술하였다.⁸⁵⁾ 2008년 6월에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광우병 선동을 주제로 한 '촛불집회, 촛불 연극'을 보게 하였고,⁸⁶⁾ 2013년에는 봉사활동 점수를 내걸고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에 인헌고등학교 학생 70여명을 참여시키기도 하였다.⁸⁷⁾

2015년에는 학교 교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 라디오 출연해 출자금 모금을 독려한 사실도 있었다. 또 '태양광을 찬양'하는 수행평가를 내며 "원전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라는 막말도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였다.⁸⁸⁾

사례5) 페미니즘 사상 강요⁸⁹⁾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견해로 적고, 성평화 동아리 WALIH가 페미니즘이라는 성담론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아리가 강제 폐쇄 통보를 당하였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헌고등학교 사태

안타깝게도 인헌고등학교 사태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한 달 동안 특별장학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의 면담을 시작으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교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441명 대상) 결과, 지난달 17일 있었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선언문띠 제작과 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21명과 97명이었다.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8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를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를 11월 21일에 발표하였다. 이 같은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학생수호연합측은 즉각 반발하며 11월 23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공범의 음모"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김화랑 군의 삭발식을 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은 "교내 사상주입 교육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며 정치교사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학생수호연합이라는 조

85)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from=kakao>

86)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4308?from=kakao>

87)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3045?from=kakao>

88) 조선일보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82768&sid1=001&from=kakao>

89) 최인호학생TV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XLYK5SEhXBo&app=desktop>, 성평화동아리 담당을 거부한

교사사진: <https://www.facebook.com/100199001411131/posts/106506230780408/?sfnsn=mo>

직의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였다. 현재,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90)

②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사태⁹¹⁾

☞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전교조 교사 현경용 교무부장의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두 딸이 문과와 이과 내신에서 각각 전교 1등의 성적을 차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애초부터 부녀지간에는 같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쪽같이 속였고, 또한, 당시 현경용 교무부장은 사립학교인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25년이나 장기 근속하여 일선 교사들에 대한, 인사 평가권도 가지고 있어 이어 교감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사였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의 주관에 개입되는 수행평가 등에서 이들 쌍둥이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쌍둥이 자매가 평소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등에서 전혀 최상위권의 성적이 아니었음에도 뜻밖으로 방학식 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성적우수 상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기말 시험지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현경용 교무부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절대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잠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사 요구가 일어나면서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까지 하게 된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정황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만으로 진실을 알기 힘들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 뚜렷한 증거들이 다수 확보됨으로 이를 토대로 쌍둥이들은 퇴학을 당하였으며 교무부장인 현경용은 2019년 5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⁹²⁾

③ 서울 충암고등학교 사태- 사립학원 피해사례⁹³⁾

☞ 충암학원(충암중·고등학교)의 소위 '부실 급식 비리' 사건은 충암학원 내의 한 현직 교사가

90)한겨레기사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7888.html>

<인현고 사태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전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7888.html#csidxc68bb09469ebcd99ed8ad6090706b0>

김화랑군 식발식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5/2019112500155.html

긴급 기자회견 | 공범의 음모 폭로한다! | 전국학생수호연합.19.11.23

<https://www.youtube.com/watch?v=CQxlmPJhngU>

조선일보 기사:(김화랑군 1인 시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6/2019120600281.html

91)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8%99%EB%AA%85%EC%97%AC%EC%9E%90%EA%B3%A0%EB%93%B1%ED%95%99%EA%B5%90%20%EC%8C%8D%EB%91%A5%EC%9D%B4%20%EC%9E%90%EB%A7%A4%20%EC%8B%9C%ED%97%98%EC%A7%80%20%EC%9C%A0%EC%B6%9C%20%EC%82%AC%EA%B1%B4>

92)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9221&ref=A>

93) 펜앤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8>

서울시교육청에 제보를 하며 시작됐다. 해당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보 과정에서 전교조 서부지부장을 지낸 홍기복씨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복씨는 지난 2014년에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예.결산 통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를 “칠판지우개를 10만개 샀다며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를 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피고소를 당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해당 고발로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은 이내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의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며, 식용유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비용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4억여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서둘러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에서는 검찰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였다.

결국, 2018년 6월 28일 최종 수사 결과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에서는 “허위 사실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케 한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확정함으로 사건 발생 2년 8개월여만에 ‘급식 회계부정’의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렸던 교장과 행정실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결국, 악의를 품었던 한 전교조 교사의 도움으로 제보가 시작되었고 부실하고 편파적인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를 언론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무작정 받아쓰며 이어진 ‘마녀사냥’ 보도로 인해 충암학원(충암중, 고등학교)과 재학생들에게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V. 연구의 진단

1. 전교조는 현재 진화하는 중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전교조 교사들이 30년동안 지속적으로 공교육을 장악하기 위하여 꾸준히 정치세력화를 한 결과 이제 가시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진보적 교육감 선출과 혁신 학교 건설, 성평등 교육, 무상급식 실현, 사학법 개정 투쟁**,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장악이라는 전교조 교사들의 당초 목표들이 초과 달성되는 이른바 전교조 전성기에 접어들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을 견제하고 대항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있다. 일례로 인헌고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스스로 전교조 교사들의 일방적인 사상주입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 전교조 출신의 서울시 교육감이 인헌고의 전교조 교사들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마땅한 방안이나 저들 전교조 교사들을 감시할 시민단체의 힘도 미약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본 연구조사에서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전교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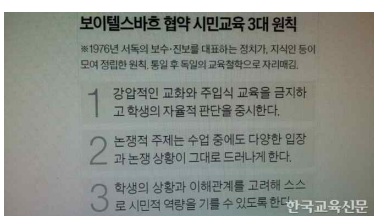
소속 교사들은 활동행태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집단적 행동과 계기수업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교육현장에서 돌출적 행동으로 비춰지기까지 했었지만, 최근의 전교조는 비록 그 소속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숫자는 줄었는지 몰라도 그 행동양식이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전교조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어 전교조교사들의 든든한 활동 배경이 되고 실제로 전교조의 협조공문이 교육청을 통하여 단위학교에 하달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교조는 이제 세월호 '기억수업'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각색하여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음이 세월호 교과서를 통하여 드러났다. 이 세월호 교과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는 이제 부교재 수준을 넘어 2020학년도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릴 예정인데 그 사실은 전국단위학교에 전시본으로 배포된 사회과 역사과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이미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적지향, 성정치 등 극좌성향의 사상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중등학교 내에 마구잡이로 유입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에까지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전교조 교사들은 해직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이 교실안에서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정치 사상교육을 주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수업을 계기수업의 형태로 진행하던 과거의 소극적인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교사가 선택하는 각종 부교재, 외부강사 초빙, 기업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상주입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주도하는 징검다리공동체에서 몇 년전부터 주창해온 소위 보이스트렐바흐 3원칙⁹⁴⁾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을 정치에 오염시키고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은 인현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이스트렐바흐 3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현고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최소한의 반성이나 후퇴도 없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내년이면 그들의 편향된 사상교육에 적합한 신종 교과서가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제는 대놓고 교과서의 내용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아예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략한 상황에서 전교조 방식의 수업이 대세를 이뤄갈 것임이 분명하다. 바야흐로 전교조는 진화하며 4차 산업혁명 수준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교사임용고시 수험문제로 좌익이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이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성적이 아니라 사상주입의 충실도가 취업이나 입학의 기준이 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연구에 따른 현재의 교육현황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94) 한국교육신문

2. 우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아직도 친목 단체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야흐로 작금의 시대는 전교조 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다. 법외노조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간 전교조이지만 이제는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당장 합법화해줄 것을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전교조이다. 대법원판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그 오만함과 독선은 아마도 전국 광역시도의 교육청 대부분을 장악한 친전교조 교육감의 존재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였다면 전교조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준 것은 바로 교육감 직선 선거제도 때문이었다. 전교조라는 강력한 결집체가 있고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와 난립하는 후보사이에 누가 승자가 될 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4년마다 치르는 교육감선거에서 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노력은 늘 있었지만 전교조 또는 전교조의 밀바탕이 되는 이념으로 뭉친 그룹이 만들어내는 좌파교육감 단일화작업에 맞설 수는 없었다. 우리는 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거나 교육시민단체에 아물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긴 채 패배로 끝나도 아무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교육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후보로 나선 사람들부터 자진해서 회고하고 반성하며 상대 후보자였던 사람들과 지지 세력들을 아우르려는 노력을 했어야함에도 서로 배척하고 지금까지도 서로 화합보다는 눈치보기에 바쁜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편,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육시민운동에 평생을 몸담아온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된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기구를 내세우면서부터 사실상 보수후보단일화기구가 보수후보단일화의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매섭게 내리쳤고 단일화기구는 분열하고 파열음을 내면서 열기가 식어갔고 결국은 흥행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진보교육감을 표방한 친전교조 성향의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당선이라는 영광을 선물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교육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사안마다 미묘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문제보다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고민해야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미 공룡처럼 거대해지고 조직화된 전교조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오랜 투쟁과정에서 체득한 전교조의 실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름의 교육철학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경험이 밀바탕이 되어 있어야 전교조와 그나마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교원의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차기 교육감선거를 위해서 종전 선거에서의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교육시민단체들의 역량과 결속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3. 서울대 사범대학교 출신 교육계 인사들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교조, 교총, 교육부를 막론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출신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교육문제를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학연과 지연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있어서 특히, 엘리트교육을 받은 특정 학교출신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보니 교육개혁은 언제나 지지부진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문제와 대학정원의 조절, 대학통폐합, 학령인구의 감소문제에 대한 대비책들은 너무도 허술하다. 교육부, 교육청은 넘치는 교육재정을 그저 갈라주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다. 교육부출신 고위공무원이 은퇴 후 지방대학의 교수로 재직한다면 이는 법관 전관예우와 다를 바가 있을지 의문이다.

4. 소결

본 연구의 최종 진단은 전교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보장해야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이라는 그 근본 원칙이 철저히 훼손된 채, 희미한 불빛에 불과하여 겨우 그 흔적만 아른거릴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형성기능으로서의 교육은 이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각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만 미래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1997. 12.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이념에 대해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교육의 국민형성기능을 강조하고 국민개인의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근본이념이다.

현재 작금의 교육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그 자리를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이념에 투철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 투철한 교육은 바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수요자로서의 선택권, 단위학교의 자율성보장이 맞물려 들어가야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은 자사고폐지, 평준화정책에 의하여 압살당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립학교는 마치 떠돌며 녹아내리는 빙산위에 세워진 학교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사학재단들로부터 소리없는 비명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더 이상 미사여구나 거대담론 그리고 현학적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현실의 상황을 담담하게 조사 연구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않고 해주신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X. 연구 참여 및 감수/자문을 도운 시민단체들(무순)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국사교과서연구소
- 바른교육실천행동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올바른교육을실천하는교사들의모임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 자유실천시민연대

IX.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1)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초등용/중등용)' 별첨
- 2) 노란테이블 포스터붙임
- 3) 조수진 교사의 학생과 함께 한 노란테이블 활동기
- 전교조 홈페이지: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11_8&wr_id=79&page=12&menu_id=4020
- 4) 세월호 200일 집중 실천행동
- 5) 초·중·등용 수업지침서, 고등용 수업지침서
- 6) 박춘애 교사 실천기
- 7) 가만히 있지 않겠다! W"진실을 찾아라W" 청소년UCC 공모전 안내 포스터
- 8) 전교조 교사 정보람의 광화문 지킴이 활동 보고서
- 9) 2015 좌담회 회의록
- 10) <노란툴킷> 증거사진과 참여 독려를 위한 영상자료
- 11) 초등 전학년용 세월호 수업지행안 별첨
- 12) 중·고등학년용 세월호 선체이양 여론조성을 위한 수업진행안 별첨
- 13) 세월호 참사 1주기 학생회 추모 행사 추진계획서 별첨
- 14) 세월호 도덕과, 직업교과 수업안(박춘애교사) 별첨
- 15) 세월호 사회,국어,미술,음악과, 공동수업안 별첨
- 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명단 수업중 공개 별첨
- 17) 세월호 공동수업안(도서,노래,영상 추천 참고자료) 별첨
- 18)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문 별첨
- 19) 단원고 교실존치 서명지와 포스터 별첨
- 20) 세월호3주기 교사선언 서명지 별첨
- 21) 세월호수업자료집2017 , 기억과공감을 위한 4.16 계기교육 수업자료2017, 416기억수업 초등수업지도안, 416기억수업 중등수업지도안, 416기억수업자료:시,영상,기사,만들기 등, 416기억수업자료-교사들이야기, 416기억수업-학교별 실제활용사례모음 별첨
- 22) 인창고 세월호 3주기 기억수업 지도안
- 23) 인창고 세월호3주기 기억수업 활동지
- 24)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초등(2018),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중등1(2018), 4주기 공동수업 지도안 중등2(2018)
- 25) 4.3영상제주도 4.3사업소 편집본.mp4, 제주4.3 추도사노무현 대통령 편집본.mp4, 헌법 제1조 2항번호사-송강호.mp4